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발음
교육 내용 분석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玄受美

2018年 8月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발음 교육 내용 분석

指導教授 金 鍾 勳

玄 受 美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6月

玄受美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8年 8月

<국문초록>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발음 교육 내용 분석

玄 受 美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鍾 勳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현행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발음 지도 영역에 분절음과 초분절음 및 음운 현상을 지도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어떤 유형의 발음 지도 과제들을 제시하고, 얼마나 명확하게 발음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발음을 어떤 언어 기능과 통합시켜 지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영어 학습자들의 구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발음 지도 내용은 어떻게 개선되고 보완되어 것이 효과적인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기본 영어 교과서인 중학교 영어 I, II, III와 고등학교 영어, 영어 I, II를 대상으로 삼아 발음 지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6명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행 영어 교과서의 발음 지도와 관련된 견해와 교과서 개선을 위한 보완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분절음과 초분절음 지도 내용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영어의 분절음들을 다루고 있지 않고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분절음 지도가 형식적인 제시에 그쳤다. 초분절음은 그 중요성에 비해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어 교사들도 초분절음은 영

※ 본 논문은 201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어 교과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음운 지도 내용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분절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행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ə/와 같은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절음들을 포함해야 하며, 초분절음에 있어서는 강세 박자 언어라는 영어의 특징을 이해시키는 관점에서 다양한 문장 강세 유형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행 영어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리듬을 추가로 반영하고 다양한 억양을 나타내 여러 가지 의사소통 상황에 적절한 억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운 현상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연습과 구개음화만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 현상은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으며 구개음화는 특정 음을 높은 빈도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탈락과 약화는 의사소통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영어 교과서는 다양한 음운 현상을 균형 있게 수록할 필요가 있다.

발음 과제의 다양성과 발음 규칙 설명 정도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최소대립이나 소리식별, 따라 읽기와 같은 전통적인 발음 과제만 제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습을 나타내는 연결 곡선이나 강세와 억양을 나타내는 기호 표시를 제외하고 발음 규칙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 그림, 팝송, 찬트, 게임과 같은 의사소통 중심의 다양한 과제 유형 제시와 더불어 발음 규칙을 이해하고 올바른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음성 변화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언어 기능과의 통합 여부를 볼 때, 모든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발음 지도 내용을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교사들도 이러한 통합 지도는 학생들의 흥미도와 효율적인 발음 지도를 위해 적절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나, 가급적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같은 담화를 통해 지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어 교사들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현행 영어 교과서는 발음 교육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양과 질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중요 분절음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초분절음 지도에 강조를 둔 의사소통 활동 중심의 발음 과제 수행을 통한 발음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목 차

국 문 초 록	i
목 차	iii
표 목 차	v
그 림 목 차	v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문제	2
1.3 구성	3
II. 이론적 배경	4
2.1 구두 의사소통과 발음 지도	4
2.2 분절음 지도	5
2.3 초분절 자질 지도	6
2.3.1 강세 지도	7
2.3.2 리듬 지도	8
2.3.3 억양 지도	9
2.4 음운 현상 지도	11
2.4.1 동화 현상	11
2.4.2 연음 현상	12
2.4.3 약화 현상	12
2.4.4 탈락/생략 현상	13
2.5 선행 연구	14
III. 연구 방법	18
3.1 분석 대상	18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9
3.3 발음 지도 내용 분석 기준	20
IV. 연구 결과 및 논의	21
4.1 중학교 영어 교과서 음운 지도 내용 분석 결과	21
4.1.1 분절음과 초분절음 분석	24
4.1.2 음운 현상 분석	25
4.1.3 발음 과제 분석	26
4.1.4 발음 규칙/특징 설명 분석	27
4.1.5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 분석	30
4.2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음운 지도 내용 분석 결과	30
4.2.1 분절음과 초분절음 분석	33
4.2.2 음운 현상 분석	34
4.2.3 발음 과제 분석	36
4.2.4 발음 규칙/특징 설명 분석	36
4.2.5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 분석	37
4.3 보완해야 할 음운 지도 내용	38
4.3.1 교과서 분석을 통한 개선점	38
4.3.2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점	47
V. 결론 및 교육적 시사점	51
5.1 요약	51
5.2 교육적 시사점	53
5.3 제한점 및 제언	54
참 고 문 헌	56
ABSTRACT	60
부 록	63

표 목 차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18
<표 2> 중학교 영어 교과서 음운 지도 현황	21
<표 3>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음운 지도 현황	31
<표 4> 인터뷰 참여 교사 배경	47

그 립 목 차

<그림 1> Gilbert (2005: 132) 사고 그룹과 성조 음절	10
<그림 2> F 교과서 (2016: 71-73) 연습, 상승, 하강 억양	28
<그림 3> I 교과서 (2016: 36) 과제 및 규칙 설명	29
<그림 4> O 교과서 (2015: 168) 억양	34
<그림 5> D 교과서 (2016: 156) 강세	42
<그림 6> I 교과서 (2016: 12) 강세	42
<그림 7> 문장의 주 강세 (Avery, Ehrlich & Jull, 1992: 75)	42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어는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문법이나 어휘에 치중된 단순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주어진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기능 중에서 음성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강조되고 있다. 음성 언어는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동화(assimilation), 생략(elision), 연음(linking), 약음(weak form) 등의 다양한 음운 현상이 나타나는 집합체이다(한종임, 2001). 학습자가 이러한 음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장을 듣고 이해하거나 발화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의사소통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 음운 현상 지도와 학습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Celce-Murcia, 2001).

의사소통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영어 음운 내용에 대한 지도와 학습은 교사와 학습자가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박경자(2002)와 배두본(1990)이 지적하듯이,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와 같은 수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영어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성 언어 사용과 이해 활동에 연계되어야 할 활동이 교과서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빈약하다. 오준영(2014)이 지적하듯이,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는 대부분 과

업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도 교과서 과제 유형 분석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 노출이 제한된 EFL 환경에서는 영어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분절음을 정확히 발음하고 강세, 억양 등 초분절음과 관련된 다양한 음운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교과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영어 학습자들의 발음 능숙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육 매체인 영어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음운 현상들을 노출시키고 익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어 교육 현장의 발음 교육 및 영어교과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긴다. 과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어 교과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어 발음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내포되어 있을까? 영어 교과서에는 영어의 자음과 모음과 같은 분절음을 비롯하여 영어의 강세와 리듬 및 억양 등 초분절적 자질을 지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고 관련된 과제들이나 활동들을 제시하여 발음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가? 영어 학습자의 발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 교과서의 발음 교육 내용은 어떻게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 교과서에 어떠한 음운 지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교과서별로 영어 분절음과 초분절음 및 음운 현상을 어느 정도 어떻게 제시하여 연습하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영어 학습자의 구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발음 지도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하며 영어 교사로서 어떻게 발음을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1.2 연구 문제

학교 교육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에서 강조하는 주된 목표이며 이를 위해 영어 교과서에는 다양한 음운 현상을 듣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중학교 영어 I, II, III 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고등학교 영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고등학교 영어 I, II 교과서를 통해 분절음과 초분절음 및 음운 현상 지도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행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분절음/초분절음과 음운 현상을 지도 내용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얼마나 다양하고 구체적인 발음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가?

둘째, 현행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분절음/초분절음과 음운 현상을 지도 내용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얼마나 다양하고 구체적인 발음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가?

셋째, 영어 학습자의 구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영어 교과서의 전반적인 발음 지도 내용은 어떻게 보완될 필요가 있는가?

1.3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 및 연구의 구성에 대해 기술한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영어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할 일반적인 발음 지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영어 교과서의 음운 교육 내용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요약한다. 제 3장은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자료 수집 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제 4장은 연구 결과 및 토론의 장으로 앞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며 관련된 논의를 한다. 마지막 제 5장은 결론으로서 앞서 논한 바를 요약, 정리하고 교육적 시사점과 더불어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의 목적은 영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발음 지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발음 지도 내용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검토하는데 있다.

2.1 구두 의사소통과 발음 지도

영어 발음 지도는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구두 의사소통(oral communication)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Morley, 1991; Pennington & Richards, 1986). 영어 교육 이론에서도 발음 지도 관련 내용은 주로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발음이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Krashen(1982)은 음운 구조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음운 구조는 듣기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어 교육에서 듣기는 모든 능력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였다. 특히,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소위 상향식 과정(bottom-up process)에서는 음소와 억양과 같은 단어와 문장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먼저 획득한 다음,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발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음소 식별하기와 강세 음절 찾기 및 문장에서 억양 인식하기 활동을 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Brown(2004)에 따르면, 이러한 듣기 모형은 단어의 변별음 구별하기, 다양한 길이의 언어덩치(chunks) 기억하기, 강세 유형과 단어 속의 강세를 구별하기, 리듬이나 억양의 정보 전달 역할을 인식하고 축약형 식별하기와 같은 세부적인 기능(microskills)을 연습하는 것을 포함한다. Wilson(2003)은 듣기에서 상향식 과정이 불충분할 때 학습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문맥을 통해 의사소통 내용을 추측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문맥에 의한 추측에 의존하기 보다는 실제로 듣는 내용을 토대로 의사소통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혜배(2005)는 기초적인 단어와 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자의 발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소리나 단어에 대한 구별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는 화자의 말을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발음은 영어의 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듣기 기능에서 중요하다.

말하기 과정에서도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하는가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기 영역에서 발음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 자신이 한 말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말하기 그 자체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Rivers, 1981). 구두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음과 모음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하며, 강세와 억양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느냐는 의미 전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Peterson, 2001). 그러므로 영어의 문장을 발성하면서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의 발음에 유의하고 적절한 연음과 축약 및 탈락을 시키면서 영어의 고유한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2.2 분절음 지도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상황에서는 영어의 분절음을 이해하고 발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에 영어 교과서는 영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 구별하고 연습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음 중에서 /l/과 /r/을 구별하고 확인하는 활동이 주어지며, 모음 중에서는 긴장모음 /i/와 이완모음 /ɪ/의 차이를 연습하는 과제가 포함될 수 있다. 영어의 자음 중에서 /l/과 /r/의 차이와 모음에서 /i/와 /ɪ/의 차이를 구별하는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영어와 한국어의 음성·음운체계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유성음 /l/과 /r/은 독립된 음소로 기능하지만, 한국어에서는 /l/과 /r/이 똑같은 /르/이라는 음소로 간주되므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영어에서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l/과 /r/를 /r/로 발음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제대로 된 의미 전달이 어려워진다.

이와 비슷하게 영어의 긴장모음과 이완모음의 차이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두 분절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두 소리의 중간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beat, leave, sleep, pool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가 발음한다면 원어민이 듣기에 각각 bit, live, slip, pull로 들을 확률이 높아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김소연, 2010).

이 밖에 영어에는 /f/, /v/, /θ/, /ð/, /ʒ/, /dʒ/와 같은 음소들이 있지만 한국어에는 이 같은 음소들이 존재하지 않아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목표어의 음소를 듣고 발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실제로 많은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의 마찰음과 파찰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구희산, 1998).

영어에는 이처럼 한국어에는 없는 분절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영어의 분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발음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 분절음이 개별적으로 소리와 의미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영어의 분절음에 대한 이해는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Jung, 2004). 그러므로 영어의 분절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발성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분절음에 관한 올바른 구분과 정확한 발성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 영어 교과서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2.3 초분절 자질 지도

영어에서 초분절음(suprasegmental)은 강세(stress)와 억양(intonation)을 의미한다. 강세는 음절에 걸쳐 있고 억양은 문장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자음이나 모음처럼 분절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영어 화자들의 발화 속에는 강세 받는 음절들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리듬(rhythm)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세 박자가 규칙적으로 번갈아 나타나는 중요성으로

인해 영어에서 리듬은 강세와 억양과 더불어 영어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제시되고 연습되어야 할 초분절 자질(suprasegmental features)로 EFL 교육과정이나 영어 교과서에 포함되고 있다.

2.3.1 강세 지도

강세란 특정 음절을 주위의 다른 음절보다 강하고 세게 발음할 때 그 음절에 가해지는 힘의 정도를 나타낸다.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강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세는 영어 학습자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변별 자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하여 Jenkins(2000)는 영어를 목표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 상호 이해도에 가장 큰 음운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강세임을 발견하고 강세를 필수적인 발음 자질로 설정하였다. McNerney와 Mendelsohn(1992)도 잘못된 강세는 의미 이해(comprehensibility)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강세 이해를 위해 듣기 활동과 더불어 단어 및 문장의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에 대한 적절한 예시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였다.

영어에서 단어나 구 및 문장 속에 주어지는 강세에 관하여 영어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영어에서는 보통 내용을 주로 나타내는 어휘들(content words)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의문사, 지시사는 강세를 받으며,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휘들(function words)인 관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관계사 등에는 강세가 할당되지 않는다.

둘째, 영어의 문장의 경우 보통 문장의 맨 마지막 내용어에 가장 강한 강세를 할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Mary went to the doctor.'란 문장에서 강세는 첫 번째 원칙에 따라 명사인 Mary, 동사인 went, 명사인 doctor에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 doctor의 첫 음절이 가장 큰 강세를 받아 지각적으로 더 현저하게 들린다.

셋째, 영어를 말하는 화자가 문장의 어느 곳에 초점을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 강세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화자의 의도나 글의 맥락에 따라 얼마든

지 강세가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John took the train to London. 이란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문장 강세는 London에 있지만, ‘버스’가 아니라 ‘열차’를 탔다는 것을 특별히 나타내고자 할 때는 train에 강세를 붙일 수 있으며, 런던에서 ‘오는’ 열차가 아니라 런던으로 ‘가는’ 열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전치사인 to를 강하게 발음할 수 있다.

2.3.2 리듬 지도

Brown(2007: 339)이 지적하듯이, 영어의 리듬은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발화할 때 의존하는 가장 주요한 조직 구조(major organizing structure)이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단어나 문장의 경계가 되는 ‘음보’를 형성하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서 리듬 구조를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Spencer, 1996).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리듬에 있다. 영어는 각각의 음절이 똑같은 강세를 받으며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는 음절 박자 언어(syllable-timed language)가 아니라, 강세를 받는 음절들이 강세를 받지 않는 음절들 사이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강세 박자 언어(stressed-timed language)이다.

음절 박자 언어인 한국어는 음절의 수에 따라 문장이 발음되는 시간이 결정되지만, 영어에서는 강세를 받는 음절수만 같으면 그 사이에 비강세 음절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발음할 때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이를 등시간격성(isochronism)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를 지키기 위해 강세 음절 사이에 오는 비강세 음절의 수가 많아질수록 빠르게 읽는다. 예를 들어 Avery, Ehrlich와 Jull(1992: 74)이 제시한 다음의 문장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BIRDS EAT WORMS.

the BRIDS EAT WORMS.

the BRIDS EAT the WORMS.

the BRIDS will EAT the WORMS.

the BRIDS will have EATen the WORMS.

위에 제시된 문장들은 내용어와 기능어의 강세 할당에 관한 정보에 따라 birds, eat, worms는 강세를 받고 그 나머지 단어들은 강세를 받지 않는다. 바꿔 말해 강세 받는 음절의 수는 동일하지만 아래 문장으로 올수록 강세 받지 않는 음절의 수는 점차 많아지고 있다. 강세 받는 음절의 수에 의해 발음 시간이 정해지는 등시간격성이라는 영어의 특성상 위 문장들을 발음할 때 걸리는 시간은 같기 때문에 비강세 음절들이 많이 들어있는 아래 문장일수록 화자는 축약이나 약화 같은 현상으로 빠르게 발성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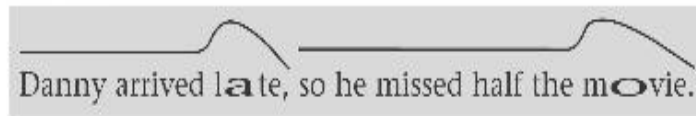
이처럼 영어는 한국어와는 매우 다른 리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영어를 발성할 때 혹은 들을 때 정확한 리듬 패턴을 구현하기 어렵다. 학습자들은 부정확한 발음을 발화했을 때 청자로부터 의사소통상의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의도한 말의 의미를 이해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의 리듬 특징을 배워야 한다(McNerney & Mendelsohn, 1992). 그러므로 영어 교과서를 통해 자연스러운 영어의 리듬을 연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3.3 억양 지도

영어 화자들은 문장을 의미 뭉치(meaningful chunks)로 나누기 위해 포즈(pause)를 사용한다. 흔히 사고 그룹(thought groups), 억양구(intonation phrases), 성조 그룹(tone groups)이라 부르는 의미 뭉치 내에는 다른 음절들보다 탁립(prominence)이 가장 높은 강세 받는 음절인 성조 음절(tonic syllable)이 존재한다. 영어에서는 이 성조 음절 다음에 음높이(pitch)에서 하강이나 상승 또는 지속 현상이 동반되면서 억양이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영어 문장 'Danny arrived late, so he missed half the movie'는 두 개의 사고 그룹으로 나누어져 'Danny arrived late / so he missed half the movie'처럼 발화하게 된다. 이 때 첫 사고 그룹 속의 내용어

인 ‘late’ 와 두 번째 사고 그룹 안의 내용어인 ‘movie’가 성조 음절이 되어 가장 강하게 발음되는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Gilbert (2005: 132) 사고 그룹과 성조 음절

영어의 억양 유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Prator와 Robinett(1985)를 따라 하강 억양(falling intonation)과 상승 억양(rising intonation), 비종결 억양(non-final intonation) 3가지로 구분한다. 하강 억양은 영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으로 평서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감탄문, 선택의문문, 명령문에서 주로 나타나며, 문장 발화시 주 강세에서 올라갔다가 나머지 문장을 발음할 때는 다시 내려오는 형태를 말한다. 상승 억양은 문장의 맨 끝을 올려 발음하는 억양으로, ‘Yes’ 혹은 ‘No’로 답할 수 있는 be동사, 조동사, do동사가 쓰인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억양 형태이다. 비종결 억양은 문장은 하강 억양과 비슷하게 주 강세에서 올라갔다가 문장의 끝부분을 내려 발음하지만, 하강 억양과는 다르게 문장의 끝을 완전히 내리지 않음으로써 문장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위에서 제시한 Gilbert(2005)의 그림을 다시 보면 ‘첫 번째 사고 그룹의 ‘late’ 는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종결 억양으로 발음해야 하며, 두 번째 사고 그룹의 ‘movie’는 하강 억양으로 완전히 내려 읽어 문장이 끝났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영어의 억양에서 중요한 것은 억양을 달리함으로써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있다. 예컨대 “The cat chased the mouse.”라는 평서문도 보통 때와는 달리 “The cat chased the mouse(↗)”처럼 상승 억양으로 발성하면, 의문문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사실은 Pard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끝을 올려서 발음하는가 또는 내려서 발음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인 ‘다시 한 번 말해 달라’는 뜻과 ‘죄송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서도 뒷받침

된다. 그러므로 영어 교과서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장에 걸쳐 나타나는 억양 유형에 대한 제시와 연습을 통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활동이 제공된다.

2.4 음운 현상 지도

음운 현상이란 분절음이 특정한 규칙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음운 현상은 발음을 용이하게 하려는 생리적 원리를 반영한 조음편이 현상(ease of articulation)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며 (Harold, 2002: 11),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는 한 자주 일어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영어 발음을 쉽게 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 교과서는 다양한 음운 현상을 소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2.4.1 동화 현상

동화란 발화 시 좀 더 부드럽고 적은 힘을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음하는 소리의 특정 자질을 닮아가거나 같아져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글자 그대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발음을 만들어내게 되고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발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면 /t/, /d/, /s/, /z/ 의 치경음(alveolar sound)은 뒤에 구개음 /j/ 이 오는 경우에 구개음화되어 [tʃ], [dʒ], [ʃ], [ʒ]의 소리로 발음된다. 그렇기 때문에 ‘did you’, ‘miss you’를 발음할 때 [dɪdʒər] 와 [mɪʃə]로 발음해야 자연스럽지만 구개음화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dɪd yu], [mɪs yu]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발음을 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has’를 [hæz]로, ‘have to’를 [hæf tu]로 발음해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정확히 발음하는 학생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오히려 발음하기 어려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원어민의 일반적인 발음을 인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발화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 교과서에 동화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2.4.2 연음 현상

연음(linking)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연속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는 음운변화 현상을 연음이라고 한다. ‘What are you’라는 말은 실제 발화에서 [wʌrəjə]가 되고 ‘all of us’는 [ɔ:ləvəs]로 발음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영어는 상황이나 화자의 의도에 따라 끊어 읽게 되는 의사 단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발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듣거나 말하기와 같은 유창성에 중심을 둔 영어 학습보다는 쓰거나 읽기, 문법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해왔기 때문에 연음과 같은 연속 발화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유혜배, 2005). 이는 단어 하나만을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어떤 단어인지 인지할 수 있지만, 문장으로 발화될 때는 개별 단어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단어나 문장이 문자로 적혀 있을 때는 구별할 수 있지만 듣거나 말하기를 통해서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연음 이해의 어려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속적인 발화에서 생기는 발음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못 파악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교과서에서 단어의 개별음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연음이 어떻게 발음되고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4.3 약화 현상

사전에서 제시된 단어의 발음 기호는 단어가 단독으로 발음될 때 쓰이는 강형(strong forms)으로 표시가 되지만, 실제 대화에서 여러 개의 단어가 연이어 발

음이 될 때 강세를 받지 않는 부분은 약형(weak forms)으로 발음이 되거나 아예 발음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습자는 단어의 강형에 익숙하고 약화되는 발음은 매우 약하게 들리거나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접속사 and 는 일상적인 대화 속도로 빠르게 발화될 때 [ənd]와 [ən]을 거쳐 [n]으로 발음하게 되고, h로 시작하는 인칭대명사(he, him, his, her)나 조동사(have, has, had)들은 첫 소리 h가 약화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Did you tell him?’에서 약화되어 [ɪm]으로 발음되는 목적어 ‘him’과 “I could have done it.”라는 문장에서 약화되어 [əv]로 들리는 have를 올바르게 듣지 못해 “I could of done it.”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즉, 문장이 길고 빨라질수록 약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약화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가능성을 반영하여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2.4.4 탈락/생략 현상

탈락 혹은 생략이란 음이 발음되지 않고 소실되는 것을 말하는데, 탈락 현상은 주로 연속으로 발음하기에 부담을 주는 경우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 나타난다. 예를 들면, ‘last night’과 ‘next day’는 자음이 가운데 연속으로 세 개가 위치한다. 이 경우 화자가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운데 자음을 탈락시켜 각각 [la:st naɪt], [nɛks deɪ]로 발음한다. 또한, ‘bus stop’, ‘good day’와 같은 경우에도 bus의 자음 /s/와 stop의 /s/가 중복되고 good의 자음 /d/와 day의 자음 /d/가 중복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발음의 편의를 위해 가운데 자음이 탈락되어 각각 [bʌstɒp], [gʊdeɪ]으로 발음된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la:st naɪt], [bʌs stɒp]과 같이 자음을 모두 발음하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끊기는 것 같은 발음을 만들게 된다. /t/ 뒤에 /d/가 오는 경우에는 빠르게 발화되는 대화에서 앞 음의 /t/는 탈락되거나 거의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sit down’과 ‘cut down’은 각각 [sɪdaʊn], [kʌdaʊn]으로 발음된다. 이러한 현상은 빠른 속도로 발화되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천천히 발화되는 대화 속에서도 나타

난다. 따라서 /t/를 탈락시키지 않고 발음하게 되면 오히려 청자가 당황하기도 한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으로 can과 can't의 발음을 예로 들 수 있다. “I can't do it.”에서는 can't의 /t/와 do의 /d/가 만나 /t/가 탈락되기 때문에 [kæn]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국 학습자들은 ‘can’의 발음을 [kæn]이 아니라 강형인 [kæn]으로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I can't do it.”을 “I can do it.”이라는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하고 의사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조한분, 2008). 그러므로 이렇게 의사소통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음운 현상들은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진다.

지금까지 음운 현상 인식을 통한 음의 구별과 올바른 발음 구현, 담화 속에서 강세와 리듬, 억양, 연음과 같은 초분절적 요소 모두 영어에서 의미상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단어와 문장 단위를 넘어서 대화나 담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발음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과거의 발음 교육이 정확성(accuracy)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의사소통 중심의 발음 교육에서는 유창성(fluency)을 더 중시한다(전지혜, 2012). 그러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음운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발음 교육에서 각각의 분절음과 초분절음 및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사이에 발생하는 발음의 변화와 음운 현상들을 학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자는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음운 현상이 포함된 여러 표현들과 문장을 듣고 연습해야 한다.

2.5 선행 연구

그동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어떠한 음운 지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각기 다른 특징이 있다. 예컨대, 고등학교 40종의 교과서에 나타난 발음 교육 내용을 분석한 김희정(2007)은 거의 모든 교과서들이 영어 수업 시간에 다루어야 할 발음 교육 내용들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발음을 다룬 40종의 교과서에서 초분절음은 40종 모두에서 다루어진 반면에, 분절음을 다루지 않은 교과

서는 11종이나 되었다. 자음 중에서는 마찰음을 가장 많이 다루고 그 뒤를 이어 파열음, 유음, 파찰음, 비음, 전이음 순서로 취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모음 중에서는 전설 모음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후설 모음, 중설모음, 이중 모음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분절 양상으로는 억양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리듬과 강세가 거의 비슷하게 다루지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음운 현상으로는 연습과 약형 연습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어 교과서의 음운 지도 내용 분석에만 연구의 초점을 둔 김희정(2007)과는 달리 강승희(2007)는 영어 교과서가 발음 교육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과서 발음 지도 내용 분석과 함께 학생들의 영어 발음에 대한 교육 실태와 인지도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서 발음 교육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4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발음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55.9%로 비교적 낮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리적으로 발음할 줄 모르는 발음 기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분에서 영어 교과서의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 분석은 발음 학습 횟수, 구성, 내용, 학습 유형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는데, 그 결과 발음 학습 횟수는 한 단원에서 6.88회로 나타나 학습해야 할 양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음 지도 내용으로는 모음보다는 자음을 강조하고 분절음보다는 초분절음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듣기 유형의 대부분이 단순 제시형으로 개별 활동이나 팀 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음을 학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 두 연구가 영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전반적인 발음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관심을 보인데 반해, 조한분(2008)은 여러 가지 음운 현상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연습 현상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연습 사례를 분석하고 연습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영어 교과서는 연습에 따른 발음 변화에 대한 설명 없이 적은 수의 예문만을 나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습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연습에 대한 지식이 모자란 학생들은 듣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연습을 많이 포함시켜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유새롬(2011)은 영어 교과서와 활동 책을 분석 자료로 선정하고 그것을 외국의 발음 교재인 *Pronunciation Plus*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외국의 발음 교재에 비해 한국 영어 교과서에서는 모든 모음을 다루지 않았고 자음군의 다양한 예시가 없는가 하면 초분절 단위인 음절, 강세에 대한 규칙은 전혀 다루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세 규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의 두드러지는 특징인 내용어와 기능어 강세와 강형과 약형에 대한 발음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억양이나 접미사 's'의 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또한 활동 책 전체 단원에서 5개 단원에서만 간단한 발음 구별법을 제시하고 있어 발음 지도의 분량과 내용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25명의 교사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발음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발음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몇 가지 연구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발음 지도가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는데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자주 발견되는 음운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발음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교과서에서 음운 현상에 대한 더 많은 제시와 연습이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오준영(2014)도 지적하듯이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듣기와 말하기 활동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핵심어 찾기, 진위형 문제에 답하기, 선택형 문제에 답하기, 내용에 적절한 그림 찾기와 같은 과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과서의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 대한 연구들(공나영, 2004; 이민하, 2010; 장인영, 2011)이 지문이나 과업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정작 구두 의사소통 능력의 기본이 되는 발음 영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교과서 발음 지도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하더라도 음운 현상 지도 내용에 대한 질적인 고찰보다는 교과서에 포함된 발음 지도의 양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두 의사소통에 토대가 되는 분절음과 초분절적 요소 및 음운 현상들이 현행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제시되어 연습되도록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영어 교과서를 통한 발음 교육이 개선되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대해 언급하고, 연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수집 방법 및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3.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영어 교과서의 발음 지도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17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현행 중학교 1, 2, 3학년이 각각 사용하는 Middle School English I, II & III 와 모든 고등학생들이 기본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High School English 와 High School English I & II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약칭	출판사	교재명	지은이
A	능률교육	Middle school English I	김성곤
B	미래엔	Middle school English I	최연희
C	동아출판	Middle school English I	이병민
D	천재교육	Middle school English II	이재영
E	동아출판	Middle school English II	이병민
F	와이비엠	Middle school English II	박준언
G	천재교육	Middle school English III	이인기
H	능률교육	Middle school English III	김충배
I	와이비엠	Middle school English III	신정현
J	능률교육	Highschool English	김성곤
K	능률교육	Highschool English	양현권

L	비상	Highschool English	홍민표
M	와이비엠	Highschool English	박준언
N	능률교육	Highschool English I	이찬승
O	천재교육	Highschool English I	이창봉
P	능률교육	Highschool English II	이찬승
Q	천재교육	Highschool English II	김진완

위 표에서 보듯이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각 3종씩 9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학년 구분 없이 전 학년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8종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편의상 영어 교과서의 명칭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로 표시하였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앞 절에서 거론한 영어 교과서와는 별도로 영어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발음 교육의 내용과 효과적인 발음 지도 방법 및 향후 보완되어야 할 발음 지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로부터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는 중학교 3명, 고등학교 3명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질문에는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발음 교육 내용에 대한 생각, 교과서의 발음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학습자의 발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 방식, 말하기, 듣기, 쓰기와 같은 다른 영역과의 통합 지도, 교과서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발음 교육 내용(부록 참고) 등 총 5가지를 포함시켰으며, 영어 교사들이 편리한 시간에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메일 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였다. 영어 교사들로부터 수집된 인터뷰 자료들은 내용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의 연구 문제와 연결시켜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그들이 자주 언급하거나 공통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범주화하여 연구 문제에 답하는데 활용하였다.

3.3 발음 지도 내용 분석 기준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포함된 발음 지도 내용에 대한 분석은 주로 McGregor와 Reed (2018)가 제시하고 있는 영어 교과서에서 포함되어야 할 발음 지도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들은 영어 교과서에서 포함해야 할 항목들로 첫째, 현행 교과서가 분절음과 초분절음 지도 내용을 포함하는가, 둘째, 발음 지도 과제 유형이 다양한가, 셋째, 발음 규칙과 특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가, 넷째, 발음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다른 언어 내용과 연계되고 있는가의 네 가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McGregor & Reed, 2018: 72).

이를 바탕으로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으로, 초분절 요소는 강세, 리듬, 억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음들의 변화 과정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은 동화, 연음, 약화, 탈락/생략으로 구분하였다. 과제 유형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발음 지도 활동에 속하는 최소대립(minimal pair) 또는 소리식별(sound discrimination), 또는 듣기와 따라 하기(listen and repeat) 방법인지 아니면 최근의 발음 지도 활동인 의사소통 활동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발음 규칙과 특징의 명시적 설명에 대해서는 해당 음운 규칙과 음운 특징에 대해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하는지를 점검하였다. 발음이 다른 영역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듣기와 말하기 기능을 포함하여 어휘와 문법 등 언어 사용의 다른 측면과 연계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는 어느 정도 발음 지도 내용과 활동 및 음운 현상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교과서 발음 지도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관련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4.1 중학교 영어 교과서 음운 지도 내용 분석 결과

먼저 3장 3절에서 제시한 분석 기준에 따라 현행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발음 지도 내용과 발음 과제 및 음운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중학교 영어 교과서 음운 지도 현황

		1학년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분절음		C: /ð/, /θ/ (2) V: /e/ (3) /u/ (4) /i/ (5) /ow/ (6) /ea/ (7)		
초 분 절 음	강세			
	리듬			
음운		Wh Q - 하강, Yes/no Q - 상승 (1)	Wh Q - 하강, Yes/no Q - 상승 (1,8)	
음 운 현 상	동화		/f/, /ð/ 구개음화(3)	/f/ 구개음화(5)
	연음		C-C (3,6,7,8)	C-C (1,3,4,6) C-V (3)
약화				

	탈락/ 생략		C탈락 /t/ (2), C탈락 /t/, /d/ (4)	C탈락 /t/ (6)
발음 과제	소리식별 (2,3,4,5,6,7)	듣고 따라 하기 (1,2,3,4,5,6,7,8) 빈칸 채우기(3,6) 표시하기(1,4,7,8) 정답 고르기(2,5)	듣고 따라 하기 (1,2,3,4,5,6,7,8)	
발음규칙/ 특징 설명	과제 설명	과제 설명, 연음 표시, 억양 표시	연음 표시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	말하기 & 듣기	말하기 & 듣기	말하기 & 듣기	

		2학년		
		D 교과서	E 교과서	F 교과서
분절음		C: /ð/, /θ/ (1) /kw/ (6) /f/ (11)	C: /s/, /z/ (1) /f/, /p/ (4) /g/, /dʒ/ (5) /k/, /ʃ/ (6) /l/, /r/ (8) /ʃ/, /tʃ/ (11) V: /i/, /i:/ (2) /æ/, /e/ (3) /ʌ/, /ju:/ (7) /ei/, /i:/ (9) /ɔ:/, /u:/ (10)	
초 분 절 음	강세	문장 강세(2,3,4,5,7,8,9,10)		
	리듬			
	억양	Yes/no Q-상승(2,4,10) Wh Q - 하강(3) 평서문-하강(5,7,8,9)		평서문 & 명령문 - 하강 (1,2,3,4,5,7,9,10) Wh Q-하강(1,2,7,8)
음 운 현 상	동화		/f/ 구개음화 (5,7) /dʒ/ 구개음화 (3,10)	
	연음	C-V (2,4,8)	C-C (1,2,3,4,5,6,7,8) C-V (2,4,5,7,8,9,10,11)	C-C (1,3,5,6,8,9) C-V (2,7,8,10) V-V (1,4,10)
	약화	인칭대명사 (2)	전치사(1,9), 인칭대명사(2,5)	전치사, 인칭대명사(3,5)

	탈락/생략	C탈락 /d/ (5)	C탈락 /t/ (3, 5)	C탈락 /t/ (8)
발음 과제		최소대립 (1) 듣고 따라 하기 (2,3,4,5,7,8,9,10) 소리식별 (6,11)	최소대립, 듣고 따라 하기	듣고 따라 하기
발음규칙/특징 설명		강세 표시, 탈락/생략 표시, 억양 표시	강세 표시, 탈락/생략 표시, 억양 표시	강세 표시, 탈락/생략 표시, 억양 표시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		말하기 & 듣기	말하기 & 듣기	말하기 & 듣기

		3학년		
		G 교과서	H 교과서	I 교과서
분절음		V: /au/ (1) /e/ (4) /ɔ:/ (10) /ə:/ (11) /ai/ (8) C: /k/ (2) /f/ (5) /d/ (6) /s/, /z/ (7) /ʒ/ (9)	V: /ai/, /ei/ (3) /I/, /ai/ (4) /ɔ:/, /au/, /ʌ/ (9) /e/ (10) C: /kw/ (1) /d/ (2) /ŋ/ (5) /k/, /s/ (7)	V: /ai/ (3) /e/, /i:/ (10) C: /s/, /z/, /iz/ (2) /p/ (4) /t/ (7)
초분절음	강세		단어 강세 (11)	문장 강세 (1)
	리듬			
	억양			Yes/no Q - 하강 (5)
음운현상	동화	/tʃ/ 구개음화 (3,8)	/tʃ/ 구개음화 (2,8,10) /dʒ/ 구개음화 (10)	/dʒ/ 구개음화 (5)
	연음	C-C (1,2,3,4,5,6,8,9,10) C-V (2,4,5,6,7,10,11) V-V (5)	C-C (1,2,10,11) C-V (3,4,5,6,7,8)	C-C (5) C-V (5,9)
	약화	전치사 (11)	전치사 (3)	
	탈락/생략			C탈락 /t/ (5)
발음 과제		소리식별, 듣고 따라 하기	소리식별 (1,2,5,6,10,11) 최소대립 (3,4,7,8,9)	소리식별 (3,7,8) 최소대립 (2,4,6,10)

		듣고 따라 하기	듣고 따라 하기
발음 규칙/특징 설명	연음 표시	연음 표시	과제 설명, 강세, 연음 표시, 규칙 설명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	말하기 & 듣기	말하기 & 듣기	말하기 & 듣기

(괄호 안에 숫자는 단원을 뜻함)

위에서 정리한 총괄적인 분석표를 토대로 현행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발음 교육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4.1.1 분절음과 초분절음 분석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분절음들을 살펴보면 모두 12개의 모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모음은 /ai/ 로, 총 6번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e/와 /i/ 가 5번씩 나타나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밖에 /ʌ/, /au/, /i:/, /ɔ:/가 3번, /ei/ 가 2번, /æ/, /ou/, /u:/, /ə:/가 1번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장모음 /i/와 이완모음 /ɪ/의 차이를 연습하는 내용은 3번이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모음으로는 /iə/, /eə/, /ə/, /ɔi/ 였다. 특히 비강세 모음 /ə/는 문장에서 기능어를 발음하거나 축약이 일어날 때 빈번하게 쓰이는 발음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교과서에서 제시된 자음을 보면 총 17가지의 자음이 다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 /s/, /z/가 총 3번 교과서에 제시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f/, /ʃ/, /k/, /ʒ/, /ð/, /θ/가 2번, /p/, /g/, /l/, /r/, /t/, /ʒ/, /dʒ/, /ŋ/가 1번씩 나타났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자음들은 /b/, /h/, /j/, /m/, /n/, /v/, /w/ 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 D와 H 교과서에서는 철자 ‘qu’ 로 시작하는 자음군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초분절적 요소를 살펴보면 강세, 리듬, 억양 중에서 억양이 5개의 교과서에서 총 29번 제시되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억양의 유형으로는 상승 억양과 하강 억양 두 가지만 나타났으며 비종결 억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교과서별로 보면 상승 억양은 A, B, D, I 4종의 교과서에서 총 10번 나타났으며, 그것을 연습시키기 위해 모든 교과서가 의문사가 없는 보통 의문문(yes/no question)을 다루었고 상대를 부르는 호격(vocatives)이 들어있는 문장이나 부가의문문은 다루지 않았다.

하강 억양의 경우 A, B, D, F, I 5개의 교과서에서 19번 제시되어 상승 억양보다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강 억양을 연습시키기 위해 교과서에서는 Wh-의문문, 명령문, 평서문, 선택의문문을 다루었고 인사말과 감탄문은 다루지 않았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Wh-의문문은 1, 2학년의 A, B, D, F 교과서에서 모두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what, where, when, why, how로 시작되는 의문문이 골고루 다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하강 억양의 예로 평서문은 2학년 D, F 교과서에서만 다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강 억양을 취하는 명령문은 F 교과서, 선택의문문은 A 교과서에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초분절음인 강세에 관한한, 3종의 교과서에서 총 10번 다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단어 강세는 H 교과서에서 1번, 문장 강세는 D 교과서에서 8번, I 교과서에서 1번 나타나 유독 D 교과서에서 문장 강세를 두드러지게 많이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비강세 모음 /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강세음절과 비강세 음절의 조화로 나타나는 리듬 또한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4.1.2 음운 현상 분석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음운 현상 중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동화, 연음, 약화, 탈락/생략 중 연음 현상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음은 9종의 교과서 중에서 A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연음은 ‘자음+자음’, ‘자음+모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으며 ‘모음+모음’에서 일어나는 연음을 제시한 교과서는 F 와 G 두 교과서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연음 현상을 다룬 것은 ‘조동사+have p.p’ 에 나타난 연음을 다룬 3학년 G 교과서가 유일하였다.

연음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음운 현상은 모든 학년의 총 6개의 교과서에 제시된 구개음화였다.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구개음화는 동화 현상 중 하나로, /s/+j/ 가 [ʃ]로 발음되거나 /z/+j/가 융합하여 [ʒ]로 발음되는 것을 비롯하여, /t/+j/가 [tʃ]로 /d/+j/가 [dʒ]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교과서에서는 [tʃ]와 [dʒ]로 발음되는 두 가지 구개음화만 수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두 가지 치경경구개음 중에서 [tʃ]는 총 9번, [dʒ]는 5번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개음화에 대한 예시로 ‘would you’ 가 4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could you’, ‘about you’, ‘last year’ 가 2번, ‘did you’, ‘lost your’, ‘that you’, ‘meet you’ 는 각각 1번씩 나타났다.

약화의 경우 D, E, F, G, H 5종 교과서에서 발견되었으며 전치사 약형이 5번, 인칭대명사 약형이 5번 제시되었다. 약형의 예로 사용된 전치사는 모두 ‘at’이었으며 to, for, as, for 와 같은 전치사는 자주 쓰이는 전치사임에도 약형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탈락/생략은 A, H, G 3종의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5종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총 8번 나타났다. 내용적 측면에서 검토하면, 동일 자음이 연속으로 이어질 때 일어나는 ‘자음 탈락’ 현상이 대부분이었고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음 탈락 중에서는 /t/ 탈락이 6번, /d/ 탈락이 2번씩 나타났다. /t/ 탈락을 제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예문은 ‘want to’, ‘wait to’가 내포된 문장이었으며, 각각 3번, 2번씩 제시되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발음 실수로 의미상의 오류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발음인 ‘can’과 ‘can’t’의 발음은 B 교과서에 1번 제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1.3 발음 과제 분석

이번에는 교실에서 직접 가르치게 될 발음 과제가 어떤 유형으로 교과서에

제시되었는지를 지적하기로 하였다. 먼저, A 교과서는 7개의 단원 중에서 상승·하강 억양을 구분하는 과제를 1번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6개의 단원에서 모두 분절음을 식별하는 과제를 제공되었다. 따라서 A교과서는 억양 형태를 인식하고 소리를 구별하는 전통적인 발음 과제를 통해 영어 학습자의 발음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보였다. 반면, B 교과서는 ‘듣고 따라 하기’, ‘빈칸 채우기’, ‘정답에 표시하기’, ‘정답 고르기’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과제들을 제공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B 교과서의 발음 과제들도 과거 영어 교사들이 교실에서 발음을 지도하며 자주 사용한 바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E, G 교과서의 경우 ‘최소대립’과 ‘듣고 따라 하기’의 2가지 과제를 제공하였으며, D, H, I 교과서는 ‘최소대립’, ‘듣고 따라 하기’, ‘소리식별’의 3가지, 그리고 C, F 교과서는 ‘듣고 따라 하기’의 1가지 과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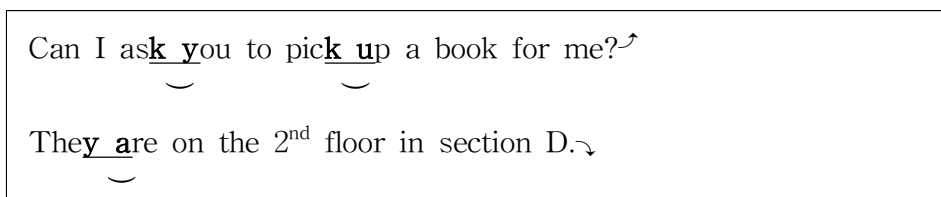
요컨대 교과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듣고 따라 하기’ 과제가 A교과서 1종을 제외한 8종의 교과서의 모든 단원에 제시되어 가장 흔한 과제 유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5종의 교과서에서 총 38번 제시된 소리 식별 과제가 두 번째로 많이 발견된 발음 과제 유형이었다. 4종의 교과서에서 총 20번 제시된 ‘최소대립’이 그 뒤를 따랐고, ‘빈칸 채우기’, ‘정답에 표시하기’, ‘정답 고르기’는 B교과서에서 1번씩만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가장 많이 제시된 발음 과제는 음을 듣고 따라하도록 하는 과제와 단어 속의 같은 음과 다른 음들을 식별하고 단어의 최소대립을 확인하는 세 가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과제는 음성 언어 지도에 초점을 두며 주어진 목표 음들(target sounds)을 계속 반복 연습시키는 활동에 역점을 둔 화청각 교수법(Audiolingual Method)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1.4 발음 규칙/특징 설명 분석

교과서에 나타난 과제 분석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발음 규칙 및 특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이다. A 교과서에는 ‘다음을 듣고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끼리 묶어 봅시다.’와 ‘다음을 듣고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다른 하나를 골라 봅시다.’처럼 기술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음식별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련의 단어를 제시하고 발음이 다르게 나는 단어들끼리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ð]와 [θ]를 비교하도록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발음 규칙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은 하고 있지 않았다. B 교과서 역시 발음 규칙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억양에 유의하면서 잘 듣고 따라해 봅시다’, ‘다음을 듣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봅시다’, ‘다음을 듣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을 써봅시다’, ‘다음을 듣고 소리 나지 않는 철자에 동그라미 쳐 봅시다’, ‘다음 문장을 듣고 억양에 표시해 봅시다’, ‘다음을 듣고 연음되는 곳을 두 군데 찾아 표시해 봅시다’처럼 과제에 대해 특징적인 설명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D, E, F, G, H 6종의 교과서는 발음 과제나 규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대신에 발음 특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구별 부호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초분절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강세에는 ‘•’ 표시를 통해 강세를 받는 단어를 강조했고 억양은 화살표(↗, ↘)를 이용해 상승과 하강 억양임을 표시하였으며, 연음은 연음되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 표시를 사용하였다. D 교과서에도 탈락 현상을 설명하지 않는 대신에 탈락 되는 자음에 ‘Ø’ 표시를 하였다.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어떻게 간략한 표시를 통해 초분절음을 나타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F 교과서 (2016: 71-73) 연음, 상승, 하강 억양

이와 같은 방법 외에 G 교과서는 철자가 다른 여러 단어를 나열하여 철자는 다르지만 같은 음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는데, 예를 들면, prize,

surprise, crazy, busy 의 4개의 단어를 나열하여 busy의 철자 ‘s’가 prize, surprise, crazy 의 ‘z’와 같은 [z] 소리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D와 H 교과서에서 자음군 ‘qu’가 [kw] 발음이 된다는 것을 설명이나 발음 기호로 나타내는 대신에 **question, queen, quick**과 같은 일련의 단어들을 제시하여 특정 자음군의 발음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H 교과서의 경우 설탄음 화에 대한 언급이 없이 better, butterfly, pity 3개의 단어를 제시하여 /t/ 발음이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예만을 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9종의 교과서 중에서 유일하게 과제 설명과 발음 규칙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는 I 교과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I 교과서는 아래와 같이 명사의 복수형이 다르게 발음되는 발음 과제를 제시하였다.

복수형을 만드는 ‘(e)s’의 발음이 다른 것에 유의하여 다음 단어와 문장을 읽어 봅시다.

[s] books elephants clips
 [z] pens dogs times
 [iz] pieces glasses boxes
 There are books and pens in the boxes

<그림 3> I 교과서 (2016: 36) 과제 및 규칙 설명

위 예를 통해 I 교과서는 명사의 끝 음이 어떤 음으로 끝나는가에 따라 [s]와 [z] 또는 [iz]로 발음되는가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명사의 끝 음이 무성음으로 끝나면 형태소의 발음은 [s]를 선택하고 유성음으로 끝나면 [z]로, 치찰음(sibilants)으로 끝나면 [iz]로 발음이 결정되는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예로써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I 교과서는 ‘표시된 부분에 강세를 두어 다음 문장을 읽어 봅시다’, ‘철자 g가 n앞에서는 발음되지 않는 것에 유의하여 단어와 문장을 읽어 봅시다’, ‘철자 t가 발음되지 않는 것에 유의하여 다음 단어와 문장을 읽어 봅시다’, ‘철자는 다르지만 모두 [ai]로 발음되는 것에 유의하여 다음 단어와 문장을 읽어 봅시다’, ‘표시된 자음과 모음을 이어 들

여 부드럽게 읽어 봅시다’ 와 같이 설명함으로써 발음 특징을 알기 쉽게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4.1.5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 분석

마지막으로 발음 영역이 영어의 어떤 기능과 연계시켜 가르치고 있는지는 교과서의 구성을 보면 쉽게 짐작된다. 교과서는 출판사에 따라 8단원에서 11단원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각 단원별로 맨 처음에 듣기와 말하기(Listening & Speaking) 영역이 제시되고 그 다음 읽기(Reading), 문법(Grammar), 마지막으로 쓰기(Writing)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중학교의 영어 교과서의 구성 영역에서 발음 지도 내용은 모두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히 지적할 것은 발음 지도 영역이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 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말하기 연습 지문이나 듣기 지문에서 나타난 문장을 이용하여 발음 지도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어 속 분절음을 설명하기 위해 지문에 나오지 않은 단어들이 일부 추가되긴 하였으나 문장의 경우 A와 I 교과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지문에 나온 문장 패턴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특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음운 지도 내용 분석 결과

앞 절에서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다른 발음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현행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음운 지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본 논문의 교과서 음운 지도 내용에 관한 4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음운 지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표로 알기 쉽게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3>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음운 지도 현황

		고등학교 공통			
		J 교과서	K 교과서	L 교과서	M 교과서
분절음					
초 분 절 음	강세	문장 강세 (3)	문장 강세 (5)		
	리듬				
	억양	Wh Q 하강, Yes/no Q 상승 (7)	Yes/no Q 상승(4)(7) 감탄문-하강 (8)		
음 운 현 상	동화	/dʒ/ 구개음화 (1) 자음동화 (8)	/tʃ/ 구개음화 (1) /dʒ/ 구개음화 (2) /dʒ/ 구개음화 (4)	/n/ 비음동화 (2) /dʒ/ 구개음화 (7) /z/ 무성음화 (6)	/tʃ/구개음화 (1) /dʒ/구개음화 (3) /tʃ/,/dʒ/구개음화 (6) 모음동화 (7)
	연음	C-C (1,2,3) C-V (2)	C-C (1,2,5,6,7) C-V (2,4,6) V-V (8)	C-C (5,7) C-V (1,3,6,8)	C-C (1,3,6) C-V (2,3,7)
	약화		전치사, 조동사 (3,6,8)	전치사, 조동사 (4,6,8)	
	탈락/ 생략	C 탈락- /t/ (4,6)	C 탈락- /t/ (5) C 탈락- /t/, /d/ (6) C 탈락- /d/ (7)	C 탈락- /t/ (1) C 탈락- /t/ (5)	C 탈락- /l/ (5) C 탈락- /t/ (8)
발음 과제		듣기, 빈칸 채우기 (1,2,4,6,8) 듣고 따라 하기(5) 억양표시하기(7) 밑줄 치기(3)	듣고 따라 하기, 소리식별(2,4)	듣고 따라 하기	듣고 따라 하기
발음설명		발음 기호, 과제 설명	강세/연음 표시, 발음 기호, 탈락/생략 표시, 억양 표시	연음 표시, 발음 기호	연음 표시, 발음 기호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		말하기 & 듣기	말하기 & 듣기	말하기 & 듣기	말하기 & 듣기

		고등학교 공통			
		N 교과서	O 교과서	P 교과서	Q 교과서
분절음			V: /o:/, /au/, /aw/, /ou/ (7) C: /θ/, /ð/ (6)		
초 분 절 음	강세		단어 강세 (3)		
	리듬				
	억양		Yes/no Q 상승 (1) Tag Q 상승/하강(8)		
음 운 현 상	동화		/dʒ/ 구개음화 (2) 무성음화 (5)		
	연음				
	약화				
	탈락/ 생략		C 탈락 h (1) C 탈락 t (4)		
발음 과제			소리식별 (1,2,4,5,6,7) 최소대립(3)		
발음설명			강세, 억양 표시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			말하기 & 듣기		

(괄호 안에 숫자는 단원을 뜻함)

위 표에 나타나 있듯이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는 발음 지도 내용이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앞서 제시된 4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발음 교육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4.2.1 분절음과 초분절음 분석

총 8종의 현행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중에서 발음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서는 5종이었다. 이 5종의 교과서 중에는 2015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정된 교과서인 J, K, L, M 4종과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전 사용된 N, O, P, Q 교과서들 중 O 교과서가 포함되어 있다. 바꿔 말해, 교육과정 개편 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교과서들 중에는 O 교과서만 발음 교육 내용을 다루었고 나머지 N, P, Q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현재 개정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다. 인터뷰에 참가한 고등학교 V 교사는 기본 영어 교과서가 발음 교육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지적했고, 고등학교 U 교사는 발음 교육이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발음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유창성이 강조되는 현 영어 교육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분절음 지도 내용에 대해 지적하기로 하겠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절음이 중학교 교과서와는 다르게 고등학교에서 매우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학교가 6종의 교과서에서 분절음을 총 43번 제시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1종 교과서에서 두 번 제시되고 있어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분절음을 지도하도록 한 교과서는 O 교과서였는데, 자음과 모음에 대한 내용을 각각 1번씩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자음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θ/와 /ð/ 이었으며 모음은 긴장모음 /ow/와 이완모음 /ɔ/ 이었다.

다음으로 초분절음에 대해서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처럼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도 억양을 가장 많이 다룬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강세와 리듬 순서를 보였다. 억양은 O, J, K 3종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상승 억양이 4번, 하강 억양이 3번, 상승과 하강 억양을 둘 다 제시한 경우가 1번이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상승 억양은 O, J, K 3종 교과서 모두 의문사가 없는 보통의문문(yes/no question)을 통해 연습하도록 하였다. 이는 중학교에서 상승 억양

을 이해하도록 했던 방법과 동일하다. 하강 억양의 경우 J 교과서에서는 Wh-의 문문으로, K 교과서에서는 감탄문을 통해 제시했는데 평서문이나 명령문은 억양 예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부가의문문의 억양은 고등학교 O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교과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가의문문의 억양을 통해 발음을 연습하도록 하였다.

The part about the Ganges River was incredible, wasn't it?↘
 cf. The part about the Ganges River was incredible, wasn't it?↗

<그림 4> O 교과서 (2015: 168) 억양

다시 말해 영어 화자는 위 첫 문장에서처럼 하강 억양으로 발음함으로써 청자로부터 갠지스 강이 놀랍다는데 대한 확신을 구하고 있으며, 같은 문장이라도 끝을 올려 발음하는 상승 억양을 취함으로써 갠지스 강이 놀랍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뜻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억양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진 초분절 자질은 강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세는 O, J, K 3종의 교과서에서 제시되었는데, 이 중에서 단어 강세는 O 교과서에서 1번, 문장 강세는 J와 K 교과서에서 각각 1번씩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강세가 3회만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는 초분절적 요소에서 강세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강세에 바탕을 둔 영어 리듬 지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발음 지도 내용에서 중요한 영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4.2.2 음운 현상 분석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음운 현상 지도에 대한 내용은 분절음이나 초분절음에 비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발견되었다. 음운 현상 중에서 동화 현상은 O, J, K, L, M 5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동화 유형으로는 구

개음화, 자음동화, 모음동화, 무성음화, 비음동화가 제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동화 유형별로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보다 다양한 종류의 동화 현상을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개음화가 9번 나타나고 무성음화가 2번, 자음동화, 모음동화, 비음동화가 각각 1번씩만 나타나 음운 현상이 주로 구개음화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의 예로 [ʃ]로 발음되는 것이 6번, [dʒ]로 발음되는 것이 3번 제시되었으나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ʃ]와 [ʒ]로 발음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구개음화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는 ‘would you’, ‘don’t you’, ‘did you’, ‘with you’, ‘could you’, ‘suit you’가 사용되었으며 이 중에서 ‘would you’가 3번 ‘don’t you’가 2번 제시되고 나머지는 1번씩 제시되었다. 특히, ‘would you’와 ‘did you’, ‘could you’는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제시된 표현들이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운 현상 중에서 연음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O 교과서를 제외한 J, K, L, M의 4종 교과서에서 총 33번 제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 교과서 당 평균 5개 이상의 단원에서 연음 현상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연음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음+자음’과 ‘자음+모음’에서 일어나는 연음 현상이 각각 13번과 11번이고 ‘모음+모음’에서 일어나는 연음 현상이 1번만 나타나 모음과 모음에서 일어나는 연음보다는 자음과 자음, 자음과 모음에서 발생하는 연음 발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 밖에 /t/나 /d/가 모음 사이에 있으면서 뒤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없을 때 우리말의 ‘ㄹ’과 비슷하게 소리 나는 현상인 설탄음화는 L 교과서에서 1번 나타났다.

다음으로 약화 현상을 보도록 하겠다. 약화 현상은 K와 L 2종 교과서에서 총 6번에 걸쳐 나타났다. 약화 현상의 예를 들기 위해 전치사 ‘to’가 4번, 조동사 can, have, had가 3번, 전치사 of는 1번 사용되었다.

음운 현상에서 마지막으로 분석할 부분은 탈락/생략이다. 탈락/생략의 경우 O, J, K, L, M의 5종 교과서에서 다루어졌는데 여기에 나타난 현상은 모두 자음 탈락에 대한 것이고 모음 탈락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음 탈락 중에서도 /t/ 탈락이 8번 제시되어 중학교와 동일하게 /t/탈락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령 ‘ought to’, ‘next time’, ‘forgot to’, ‘want to’, ‘best to’, ‘first to’ 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t/ 탈락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 /d/ 탈락이 ‘allowed to’, ‘forward to’라는 표현을 통해 2번 다루어졌으며, 의문사 what과 접속부사 while의 예를 들어 어두의 h 탈락을, 조동사 will이 ‘I’ll be there’과 같이 축약될 때 [e] 혹은 [ɪ]로 발음되는 /w/의 탈락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4.2.3 발음 과제 분석

다음으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발음 과제를 검토하면 중학교 영어 교과서와 동일하게 전통적으로 발음을 지도할 때 교사들이 사용해 온 과제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음 과제 중에서 ‘듣고 따라 하기’가 O, J, K, L, M 5종 교과서에서 25번 나타나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소리 식별’이 O와 K 2종 교과서에서 3번 제시되었다. 또한 ‘최소대립’, ‘억양 표시하기’, ‘밑줄 치기’, ‘빈칸 채우기’가 O 교과서에서 1번씩 제시되었다. 교과서 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O 교과서에서는 1개의 단원에서 최소대립 과제를 포함시켰고 나머지 7개의 단원에서 ‘소리 식별’ 과제를 다루었다. J 교과서는 ‘듣기’, ‘듣고 따라 하기’, ‘빈칸에 채우기’, ‘밑줄 치기’, ‘억양 표시하기’와 같은 5가지 유형의 과제를 다뤘다. 이에 반해 K, L, M 교과서는 모든 단원에서 ‘듣고 따라 하기’의 한 가지 과제만을 제시하고 있어 나타나고 있어 J 교과서가 제시한 다양한 유형의 과제와 비교할 때 과제의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발음 과제 역시 중학교 교과서의 과제처럼 과거 전통적인 발음 지도를 위해 사용했던 과제에 속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4.2.4 발음 규칙/특징 설명 분석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발음 규칙이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발음 현상에 대한 명시적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

혀졌다. 다만, 이들 교과서도 중학교 교과서에서처럼 억양과 강세를 나타내는 기호인 ‘˘’, ˊ, ˋ, ‘•’를 사용함으로써 그 특징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과제에 대한 언급을 한 J 교과서는 ‘발음에 집중하여 잘 들어 봅시다’, ‘대화를 잘 듣고 따라 해 봅시다’, ‘듣고 알맞은 말을 빈칸에 채워 봅시다’, ‘강세가 있는 단어에 밑줄 쳐 봅시다’, ‘억양에 유의하여 화살표 해 봅시다’처럼 기술함으로써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교적 알기 쉬운 설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과서들 중에서 O, J, K, L 교과서는 발음 규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예를 들어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령 J 교과서는 비음 동화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let me’와 ‘give me’ 두 가지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let’과 ‘give’가 각각 뒤에 나오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 [lɛmmi]와 [gɪmmi]가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발음 기호를 함께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와 L 교과서에서도 유·무성 동화를 나타내기 위해 복수명사 접미사 ‘(e)s’의 발음 변화를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e)s’의 경우 [s], [z], [ɪz]의 3가지 발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두 교과서에서는 [s]와 [z]만 제시하고 [ɪz]로 발음되는 경우는 제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L 교과서는 ‘sunglasses’, ‘congress’라는 2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발음 기호 [ŋ]을 함께 표시하여 비음 동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L 교과서는 ‘I think you should write a daily planner’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설탄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문장을 다루기도 했는데, 발음 규칙이나 설탄음화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시나 발음 기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4.2.5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 분석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발음 지도를 언어의 어떤 다른 기능과 통합시켜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 5종의 O, J, K, L, M 교과서가 모두 발음 교육을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 포함시켜 다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과 동일한 것이며 고등학교의 발음 교육도 말하

기와 듣기 활동에서 배운 문장이나 단어를 발음 지도에까지 확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말하기와 듣기 활동에서 ‘What do you think of?’라는 표현을 배웠다면, 이런 표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 해당 단원의 발음 지도 내용이 되는 것이다. 발음을 어휘나 문법의 영역과 통합시켜 다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찾을 수 없었다.

4.3 보완해야 할 음운 지도 내용

지금까지 교과서 분석을 통해 현행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발음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발음 교육 내용을 어떻게 수정·보완해야 바람직한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4.3.1 교과서 분석을 통한 개선점

교과서 분석 결과 McGregor와 Reed(2018)가 제시한 교과서의 발음 지도 네 가지 기준 중 첫 번째 항목인 ‘분절음과 초분절음에 대한 발음 지도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분절음의 경우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보다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문제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수록된 모음과 자음은 특정 분절음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는 이중모음 /ai/를 비롯하여 /e/와 /i/의 차이를 구분하고 긴장모음 /i/와 이완모음 /ɪ/를 연습하는 활동이 많이 다루어진 반면에 /iə/, /eə/, /ə/, /ɔi/ 같은 모음들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게다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모음 중에서 /ow/와 /ɔ/만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중에서 적어도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모음으로는 schwa라 불리는 /ə/

라 할 수 있다. /ə/는 about의 pupil의 밑줄 친 모음의 발음에서 보듯이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의 발음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문장에서는 기능어를 발음하거나 축약이 일어날 때 빈번하게 쓰이는 발음이다. /ə/는 철자의 발음과 다를뿐더러 실제 발화에서 강세를 받지 않아 거의 들리지 않는 음이기 때문에 모든 영어 학습자들이 학습초기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음으로 알려져 있다 (Kenworthy, 1992: 51).

다음의 경우 중학교에서는 /s/, /z/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f/, /tʃ/, /k/, /ʃ/, /ð/, /θ/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며, /p/, /g/, /l/, /r/, /t/, /z/, /dʒ/, /ŋ/는 한 번씩 제시되었다. 그러나 무성음과 유성음이 차이가 나는 /θ/와 /ð/를 제외하고 유무성의 대립되는 다른 음들이 교과서에 수록되지 못함으로써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발음 학습에서 중요한 무성음과 유성음을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Avery와 Ehrlich(1992)가 지적하듯이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 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한국어와 영어의 음성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며 그 중에서 영어의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그들에 의하면, 한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무성음들이나 유성음들은 /p/와 /f/, /b/와 /v/, /p/와 /b/, /s/와 /ʃ/, /θ/와 /ð/ 그리고 /l/과 /r/이다. 이 중에서 [θ]와 [ð]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모두 제시되었으나 나머지 자음들은 중학교 교과서에서만 단 한 번 나타나거나 /b/와 /v/처럼 아예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영어 교과서에는 이 같은 대립되는 자음들을 다양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에는 /f/와 /v/가 없기 때문에 /f/를 [p]로 발음하거나 /v/를 [b]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고 무성음인 /p/와 유성음인 /b/, 영어에서 독립된 음소지만 한국어에서는 ‘ㄹ’이라는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는 /l/과 /r/도 한국 학습자들이 발음상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자음들이다(이자윤, 2012). 그럼에도 이러한 자음에 대한 설명은 모든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 한 번씩만 제시되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용빈도가 높거나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어진 음운 현상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다는 연구(유혜배, 2005)를 볼 때 학생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분절음들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는 교과서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영어에는 존재하나 한국어에 없는 대표적인 음인 치경경구개음 /ʃ/, /ʒ/, /ʒ/, /dʒ/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발음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자주 다루어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과서에서 치경경구개음들이 수록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교과서에서 이러한 자음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ʃ]의 발음 지도를 다룬 E 교과서의 발음 지도 제시 방법을 보면, [ʃ] 발음이 되는 shake, shoes, should 와 [ʒ] 소리가 나는 chair, chocolate, match 와 같은 소리구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교과서가 분절음 [ʃ], [ʒ]의 각각의 분절음이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나타내는데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ʃ]의 경우, ‘t+r’로 시작하는 단어나 ‘t+u’인 경우에도 나타나는 발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예시가 함께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train이나 tree, actually 와 같은 단어들은 각각 ‘츄레인’, ‘츄리’, ‘액츄얼리’로 발음해야 하지만 ‘t+r’과 ‘t+u’가 [ʃ] 소리를 낸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은 ‘트레인’이나 ‘트리’, ‘액트얼리’ 라는 어색한 발음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영어 교과서에는 각각의 분절음을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분절음이 결합하여 특정한 발음이 생성되는 발음 규칙에 대한 다양한 예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자음 중 비음 [m]과 [n]의 경우 공기를 코로 내보내며 만드는 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콧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m]과 [n]을 각각 [ㅁ]와 [ㄴ] 소리로 간주하여 발음하기 때문에 비음을 분명하게 발음하지 못한다(임다운, 2016). 이러한 자음들도 교과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종의 교과서 중 단 한권의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자음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번에는 영어 교과서에 초분절적 자질이 어떻게 보완되면 좋은지를 고려해 보기로 하겠다. 앞 장의 교과서 분석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초분절음 중에서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에 모두 높은 비율로 다루어진 것은 억양이었으며 억양의 유형으로는 상승 억양과 하강 억양 두 가지만 나타나고 비종결 억양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승 억양을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yes/no question)을 주로 사용하였다. 하강 억양의 경우 주로 Wh-의문문을

활용했으며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는 적은 횟수이긴 하나 명령문, 평서문, 고등학교에서는 감탄문을 사용하였다. Wh-의문문은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높고 다양한 의문사가 고루 사용되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통해 Wh-의문문을 하강 억양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평서문이나 명령문, 감탄문과 같은 문장들은 교과서에 다루어진 수가 매우 적어 현행 영어 교과서는 하강 억양이 나타나는 문장 패턴을 다양하게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문장이라도 억양에 따라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부가의문문은 억양 학습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김지현, 2005)임에도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 과정을 보면 부가의문문은 중학교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내용이므로 최소한 부가의문문을 배우게 되는 해당 학년 영어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억양 지도가 포함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 발음 교육에서 억양 지도가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Levis(1999)는 영어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다양한 억양을 문맥 통해서 일원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발화에 쓰이는 언어를 사용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Gumperz(1982)도 비원어민 화자가 부적절한 억양을 사용했을 때 원어민화자는 무관심하고 열의가 없어 보이며 심지어 무례하게 해석되는 경우까지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어 교과서는 다양한 억양 패턴과 문장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적절한 억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초분절음 중 하나인 강세에 관한 중·고등학교 3종의 영어 교과서에서 평균적으로 한 번씩 제시되고 있어서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는 초분절음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결코 많이 다루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영어의 강세는 리듬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강세 받는 음절의 예를 좀 더 많이 수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강세음절을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행 영어 교과서의 강세 표시는 다음의 D 교과서와 I 교과서에의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In English they say “You’re welcome.”↵

<그림 5> D 교과서 (2016: 156) 강세

표시된 부분에 강세를 두어 다음 문장을 읽어 봅시다.

It was **really fun**.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I **need** your **advice**.

<그림 6 > I 교과서 (2016: 12) 강세

위 두 교과서를 비교하면 D 교과서는 작은 원과 큰 원을 이용해 강세를 나타낸 반면에 I 교과서는 모두 같은 크기의 원을 사용하여 강세를 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의 문장 강세는 맨 오른쪽에 위치한 내용어에 주 강세를 두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D 교과서처럼 문장 속에서 가장 큰 강세를 받는 음절을 크게 표시하는 방법이 올바른 강세 표시라 할 것이다. 문장 강세에 대한 적절한 표시는 Avery, Ehrlich와 Jull(1992)에 잘 제시되어 있다.

Susan bought a new sweater at Creeds.

I walked home in the rainstorm.

Peter likes your suggestion.

<그림 7> 문장의 주 강세 (Avery, Ehrlich & Jull, 1992: 75)

만약 I 교과서처럼 모든 내용어에 동일한 크기의 강세 표시를 한다면, 문장 속 강세 현상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 문장 강세를 나타낼 때 학생들이 어느 곳에 강세를 두고 또 어느 곳에 더 강한 제 1강세를 두어야 하는지

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세 표시를 명확히 하는 일이 요구된다.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강세 지도 내용과 관련해서 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문장 속에서 발음이 약화되는 현상과 비강세 모음의 발음 및 복합어의 강세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바 있다. 가령, Jones(1967)는 약형의 적절한 사용은 영어의 올바른 발음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학습자들에게 약형 발음 연습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very와 Ehrlich(1992)도 강세를 받지 않는 음절에서 모음이 약화되는 언어가 모국어 아닌 학습자들에게는 강세 받지 않는 모음이 [ə]로 발음되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Swerts와 Gelukens(1994)는 영어는 강세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단어 강세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단어나 문장에서 약형과 비강세음, 품사 변화에 따른 강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강세음절과 약형, 비강세 음절을 분명히 식별하지 못하고 단어 강세의 경우 첫음절에만 강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단어 강세를 다룬 교과서는 중학교 H 교과서와 고등학교 O 교과서뿐이었는데 이 교과서에서도 복합명사는 다루지지 않았으며 H 교과서는 첫 음절에 강세를 받는 단어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칫 학생들로 하여금 단어 강세는 무조건 첫 음절에 온다는 잘못된 사실을 획석화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세를 설명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어와 기능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Prator와 Robinett(1985)는 강세를 받지 않는 기능어는 강세를 받는 내용어 사이에서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듣거나 발음하는데 있어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내용어와 기능어의 발음 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음절수에 따라 발음하는 시간이 결정되는 한국어에 익숙한 학습자들의 발음상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영어 교과서는 내용어와 기능어에 부여되는 강세에 관한 내용을 발음 지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 강세에 대한 이해는 영어의 리듬을 아는 길잡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영어의 리듬은 강세 받는 음절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생겨나

게 되고 영어를 영어답게 나타내주는 요소이다. 그러나 부정확한 리듬 패턴은 청자의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Celce-Murcia, Brinton & Goodwin, 1996). 그러므로 리듬은 강세, 억양과 더불어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제시되고 연습되어야 할 초분절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현행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강세 지도 내용이 부족하고 강세를 기반으로 한 영어 리듬에 대한 교육은 어떤 교과서에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한 음절과 약한 음절이 번갈아 나타남으로써 형성되는 영어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리듬의 특성을 인식하고 교과서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자연스러운 발화를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영어의 음운 현상 지도를 위해 영어 교과서에 보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적하기로 하겠다. 음운 지도 현황 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현행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연음, 동화(구개음화), 탈락/생략, 약화의 순서로 해당되는 예를 보이며 음운 현상을 취급하였다.

우선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취급된 연음 현상은 자음과 자음이 연결되거나 자음과 모음이 연결되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을 다루는데 집중되어 있다. 연음은 be on time, pay up, he isn't의 예들에서 보듯이 모음과 모음이 연결될 때에도 얼마든지 나타난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는 이런 유형의 연음 현상도 제시되는 편이 나올 것이다.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다루어진 탈락/생략 현상은 주로 동일 자음이 중복될 때 이들 가운데 하나를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t/ 탈락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비음 뒤에서 /d/가 탈락하는 경우 (grandson[grænsʌn])를 비롯하여, anxious[ænjʃəs]처럼 /ŋ/ 뒤 /k/가 탈락하거나 blackguard[blækgɑ:d]처럼 /g/앞의 /k/가 탈락하는 등 자음 탈락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일어난다. 게다가 factory와 territory와 같은 환경에서는 모음도 탈락한다. 이를 고려할 때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자음 탈락과 더불어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행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음운 현상으로서 동화는 구개음화가 유일했으며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이보다 다양한 구개음화, 자음동화, 모음동화, 무성

음화, 비음동화가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구개음화의 경우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는 모두 /t/나 /d/가 구개음 /y/ 앞에서 [tʃ]와 [dʒ]로 발음되는 현상만을 취급한 것이 제한점이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s/나 /z/가 /y/ 앞에 올 때 [ʃ]와 [ʒ]로 구개음화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이와 더불어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동화 유형을 다양화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약화의 경우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기능어 중 전치사와 인칭대명사의 약화를 다룬 반면에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주로 전치사와 조동사의 약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기능어의 강형과 약형의 발음을 구분해서 발음을 지도하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should have, must have, could have와 같은 기능어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룬 교과서는 거의 없었다. 중학교 3학년 G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이 내용을 다뤘는데, 그 정도의 연습으로는 기능어의 발음이 어떻게 약화되어 발음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능어의 발음을 연습시킬 때는 Hewings와 Goldstein(1990: 120)이 언급하듯이 shouldn't have가 연습되어 h가 탈락하고 강형으로 발음되던 [æ]가 약형인 [ə]로 발음된다는 명시적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발음 지도 내용은 모든 교과서가 듣기와 말하기 영역과 통합하여 가르치도록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기와 듣기 영역과의 통합을 통해, 말하기 연습 지문이나 듣기 지문에서 나타난 문장을 발음 지도에 적용하여 자주 사용되는 의사소통 구문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Kenworthy(1992: 13)는 좋은 발음이란 원어민이 비원어민과 대화를 나눌 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intelligibility) 발음 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영어 대화에서 학습자의 발음은 정확정보다는 의미 전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발음 수준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발음 지도를 문법이나 어휘와 통합시키기 보다는 유창성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 포함시켜 다루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 교사가 교실에서 제공하는 발음 과제들은 그 유형의 다양성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교과서 분석의 결과 중 하나였다. 총 17종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활동은 최소대립과 소리식별, 듣고 따라 하기 과제였다. 그 밖에 빈칸 채우기, 정답 고르기, 화살표로 억양 표시하기 활동 등을 제시한 교과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1권씩 있었지만 그 수가 매우 적었다. 더구나 교과서에서 제시된 활동들을 보면 고전적인 훈련 방법에 국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Rivers(1981)는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효과적인 학습활동 유형으로 게임, 팝송배우기, 퍼즐과 같은 다양하고 학습자 중심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하게 발음 교육도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관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며(Celce-Murcia et al., 1996), 게임이나 팝송, 찬트와 같이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했을 때 효과적이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안미순, 2015). 이러한 관점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하는 다양하고 적절한 과제들인 찬트나 노래 및 역할극 속에서 학습대상으로 하는 영어의 음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는 해당되는 발음 과제나 활동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학습자들이 발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서를 분석하며 발음 활동에 대한 설명과 규칙에 대한 언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활동을 명확히 한 설명은 중학교에서 2종, 고등학교에서 1종 교과서에 한정됨으로써 전반적으로 활동이나 규칙에 대해 명시적인 설명을 한 교과서가 매우 적었다. 발음 규칙에 대한 설명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제시된 교과서가 없었으며 중학교의 I 교과서만이 유일하게 규칙 설명을 포함하였다. 이 사실은 Skierso(1991)가 언급한 교과서에 대한 견해, 즉 바람직한 교과서란 연습문제와 활동에 대한 지시가 명백하고 적절해야 하며 학생의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발음 활동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명확히 진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세를 가르치는 활동에서 “다음절로 구성된 단어들은 하나의 강세 받는 음절들과 둘 또는 그 이상의 강세 받지 않는 음절들로 구성된다. 이 경우 비강세 음절들은 보통 [ə]로 발음되는데, 이 점에 유의하여 다음을 연습해보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제 수행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중 영어 I 과 II에 해당하는 N, P, Q 교과서들은 발음 지도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들은 모두 고등학교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학년 구분 없이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책이다.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 지적했듯이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있어 발음 교육은 모든 교육을 선행하는 가장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교육이다. 그럼에도 몇몇 기본 교과서에서 발음 교육 내용이 없다는 것은 차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4.3.2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점

여기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보고 효과적인 영어 발음 교육을 위해서 교과서의 발음 지도 내용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인터뷰에 참가한 교사들의 개인적 배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교사명은 교과서 명칭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R, S, T, U, V, W로 표시하였다.

<표 4> 인터뷰 참여 교사 배경

근무 학교	성별	교사 명	교육 경력
중학교	여	R	7
중학교	여	S	6
중학교	남	T	3
고등학교	여	U	6
고등학교	남	V	8
고등학교	여	W	5

위를 바탕으로 먼저, 인터뷰 1번 문항인 ‘현행 교과서 발음 교육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학교와 성별 및 교육 경력과 관계없이, 이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학교 S 교사는 “교과서의 발음 교육 내용이 매우 부족해 실제 수업에서 교과서만으로 발음을 지도하기 어렵다”라고 언급

함으로써 교과서 발음 지도 내용 부족이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발음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비슷하게 고등학교 U 교사도 “학생들이 다른 영역에 비해 발음 학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발음 오류를 자주 범하는 이유는 교과서의 발음 지도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하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음 문제와 인식이 교과서의 발음 지도 내용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나머지 다른 교사들 모두 이 같은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과서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고등학교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기본 교과서인 영어 I과 II에서 발음 교육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발음 지도가 포함된 교과서에서도 발음 기호나 발음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답했다. 이 사실은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이 현행 영어 교과서의 발음 지도 내용이 양적이고 질적인 면에서 모두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터뷰 2번 문항인 ‘발음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들 모두가 발음 기호에 대한 설명이 저학년 교과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조음 위치에 따라 발음을 정확히 연습할 수 있도록 발성기관 그림이 추가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밖에 중학교 R 교사와 고등학교 U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이 변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과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가령, 교과서 발음 지도가 적절하게 바뀌기 위해 평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한 중학교 R 교사는 “현재 듣기는 듣기 평가로 평가하고 말하기는 수행 평가로 평가하고 있는데,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발음 내용을 강화하여 발음을 평가한다면 의무적이기는 하나 학생들에게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영어 교과서에 발음 지도 내용이 포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전의 평가 방법에 대한 교사의 태도나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뷰 3번 문항인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에게 발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과거 발음지도에 사용했던 전통적인 교실 기법 대신에 의사소통 활동 중심의 기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인터뷰 참여자 중 교육 경력이 비교

적 짧은 중학교 T 교사는 “최소 대립(minimal pairs)이나 소리 식별, 따라 읽기와 같은 방법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팝송이나 게임과 같은 흥미로운 활동들로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육 경력이 좀 긴 고등학교 V 교사도 “기존의 최소 대립이나 따라 읽기(listen and repeat)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생이 직접 반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특정 부분을 녹음하고 교사나 친구가 피드백을 주는 등 활동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답했다. 의사소통 발음 과제를 중요하게 여긴 고등학교 W 교사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실제 자료(authentic material)를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만들고 role play를 해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결과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발음 과제는 학습 대상으로 삼은 음들이 포함된 단어의 최소대립을 연습하거나 녹음기나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하기와 같은 종래의 방법보다는 게임, 노래, 찬트, 역할극과 같은 흥미롭고 도전적인 과제로 선정되어야 더 효과적임을 알려주고 있다.

인터뷰 4문항인 ‘발음 지도를 다른 영역(말하기, 듣기, 쓰기)과 통합시켜 지도하는 게 좋은지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지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답으로 모든 교사는 통합 지도가 좋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중학교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발음을 별도의 영역으로 지도할 때 학생들의 흥미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테면 중학교 S 교사는 정확하고 유창한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모방하다 보면 억양이나 리듬, 강세와 같은 초분절적 요소들에 대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 영역과 발음을 통합하여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고등학교 교사들은 흥미도 보다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발음 교육이 듣기와 말하기 영역과 통합되어 지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가령, 고등학교 U 교사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장 패턴과 표현을 통해 발음을 익히는 것이 의사 전달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듣기나 말하기 영역에 통합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어 교과서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발음 지도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인터뷰 5번 문항에 3명의 교사가 억양이라고 응답했고, 2명의 교사는 억양과 강세, 나머지 한명은 강세라고 대답했다. 따라서 교사들은 분절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보다는 초분절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실은 교과서가 향후 초분절음의 지도 내용을 더욱 보강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바람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교과서에서 억양과 강세가 반드시 다뤄야 하는 이유는 억양이나 강세가 의미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영어 발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T 교사는 억양은 학생이 스스로 익히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강세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 고등학교 W 교사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그녀는 “학생들이 native는 ‘네이티브’라고 발음 하는데 alternative에서는 ‘얼터네이티브’가 아니라 ‘얼터너티브’라고 발음되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많다. 이러한 실수는 사소하지만 강세로 인해 의미 차이가 생기는 단어와 문장이 많기 때문에 강세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 억양이나 리듬을 배워야 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초분절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V. 결론 및 교육적 시사점

이상으로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발음 지도 내용을 토대로 보완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분절음과 초음절음 및 음운 현상의 포함 정도, 발음 과제와 다양성, 발음 규칙에 대한 명시적 설명의 여부와 발음 영역의 다른 언어 기능과의 통합이란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는 앞에서 다른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 정리하고 연구 결과가 주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논문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지적하고자 한다.

5.1 요약

본 연구는 현행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발음 지도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17종의 중학교 영어 I, II, III 교과서와 고등학교 영어, 영어 I, II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발음 지도를 위한 교과서의 보완점을 알아보기 위해 6명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로부터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중학교 영어 교과서 음운 지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음과 모음을 다루는 비율이 높아 분절음을 중요하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분절음에서는 강세보다 억양을 다루는데 관심이 많았으며 리듬에 대해서는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운 현상은 연음, 동화, 탈락, 약화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도 연음과 동화를 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에서는 구개음화 한 가지만을 포함시킨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교과서가 최소대립, 소리식별, 따라하기 처럼 전통적인 발음 지도 과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발음 규칙과 관련해서는 기호를 통해 음성·음운 현상을 나타내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반되지 않는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교과서가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제시된 표현과 문장을 이용해 발음을 통합지도 하고 있으며 읽기나 문법, 쓰기 영역과 통합시켜 발음을 지도하도록 집필된 교과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음운 지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분절음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음운 현상을 다루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개음화를 비롯하여 무성음화, 자음동화, 모음동화, 비음동화를 다양하게 연습시키도록 하였는데, 구개음화 외에 다른 동화 현상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은 문제였다. 초분절음에 관한 강세보다는 억양을 주로 제시하였고 리듬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 많이 사용해 왔던 발음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던 점과 모든 교과서가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발음 부분을 통합시켜 지도하도록 했던 점은 중학교 영어 교과서와 공통된 특징이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들도 여전히 발음 규칙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설명이나 기호만을 이용해 간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완이나 개선되어야 할 현행 영어 교과서의 음운 지도 내용을 지적하면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우선 영어에서 자주 발견되는 비강세 모음 /ə/와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여러 종류의 유·무성음들의 차이를 연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더욱 심화된 음운 현상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음운 현상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초분절음을 지도하는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인데 현직 영어 교사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초분절음에 대한 발음 지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분절음 이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강세 규칙을 강화하여 다루고 강세 현상 설명과 함께 리듬 교육을 지도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억양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장 패턴이나 대화 속의 여러 문장들에 나타난 억양 유형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음운 현상에서도 연음과 구개음화와 같은 특정 현상에만 치중하는데서 벗어나 다양한 음운 현상을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어 학습자들의 발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거 영어 발음 교육에서 주로 사용했던 최소대립이나 음소 식별 및 듣고 모방하기 방식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의사소통 활동 중심의 다양한 과제들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인터뷰에 참여한 영어 교사들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시각적인 자료를 사

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영화, 드라마, 팝송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혹은 찬트, 역할극, 게임과 같이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발음 변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음운 현상에 사용된 예문들에는 어떤 규칙에 의해 어떤 음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수반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발음 지도 내용이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 통합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교사들도 학생의 흥미도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발음 교육을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함께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으나 문장의 일부만으로는 실제 대화 속도에서 나타나는 발음을 올바르게 익힐 수 없기 때문에, 대화문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서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영어 교과서 집필자, 영어 교사 및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 분석 결과 교과서에 따라 다루고 있는 발음 내용이 달랐으며 발음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영어 교과서는 학교마다 다양한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배우는 발음 교육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심지어 발음 지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어떠한 교과서를 선택하더라도 발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영어 교과서만큼은 영어 발음 지도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그 수록할 발음 지도 내용은 분절음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을, 음운 현상은 좀 더 다양한 예들, 강세와 리듬 및 억양은 가급적 의사소통 과제 중심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고등교과서에 나타난 발음 교육 내용은 중복되거나 비슷한 수준의 내

용이 많아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심화·보충된 내용을 연계하여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학교에서는 분절음을, 고등학교에서는 음운 현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중학교에서 다루지지 않은 음운 현상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어 학년별 수준을 충분히 반영해 각 학년에 맞는 수준별 발음 지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년별로 체계적이고 해당 학년 수준에 맞는 발음 지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분석된 중학교 영어 교과서들 대부분이 발음 교육 내용이 부족하고 이를 통해 발음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음 지도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등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가장 적은 비중으로 다루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 단원에서 다루지는 발음 지도 내용은 한 문장에서 많게는 네 문장으로 제시되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 지도의 양적인 면에서도 매우 부족하고, 발음 규칙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을만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어 발음 지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빈약하다. 그러므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충분한 발음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교과서와 영어 교사들은 지금보다 더 비중 있게 발음 교육을 다루고 수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5.3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발음 지도 내용을 새로운 분석 기준에 따라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어 교과서 중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중학교 영어 I, II, III와 고등학교 영어, 영어 I, II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영어 교과서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실용영어, 영어회화와 같은 교과서에 음운 지도 내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발음 교육이 중등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제시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서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와의 연계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학년간의 범위를 초등학교로 넓혀 저학년에서 제시된 발음 교육이 상급학년에서 어떻게 연계되고 보충, 심화 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음운 현상에 대해 동화, 연음, 약화, 탈락/생략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그 밖에 여러 다양한 음운 현상들을 포함하여 진행하면 보다 다양한 발음 교육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각 학년별로 다양한 기본 영어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교과서를 통해 알 수 있는 학년 간 연계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에서는 동일한 교과서를 분석하여 학년 간 발음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4].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강승희. (2007). *고등학교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학 학생 의견 조사와 교과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나영. (2004). *고등학교 영어(II) 교과서 내용분석: 제7차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희산. (1998). *영어 음성학*. 서울: 한국문화사.
- 김소연. (2010). *중학교 개정 영어 교과서 발음 지도 내용 분석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5).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영어 억양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2007).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발음 교육 내용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자. (2002). *영어교재론*. 서울: 박영사.
- 배두분. (1990).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 안미순. (2015). *영화를 활용한 영어의 리듬과 억양 습득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준영. (2014).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세롬. (2011).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발음 지도 내용 분석*.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배. (2005). 영어 연음에 관련된 음운 현상 인지에 관한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1), 273-293.
- 이민하. (2010). *개정 7차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자윤. (2012). *영어 음운 현상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매체 개발 연구*. 단국대학

-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다운. (2016). *한국어 화자의 영어 학습음에 나타나는 비음화와 유음화 현상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영. (2011). *2007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듣기·말하기 활동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지혜. (2012).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발음 지도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분. (2008). *고등학생 영어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 지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중임. (2001). *영어음성학과 발음 지도*. 서울: 한국문화사.
- Avery, P. & Ehrlich, S. (1992).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Avery, P., Ehrlich, S. & Jull, D. (1992). Connected speech. In Avery, P. & Ehrlich, S. (Ed.).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pp.73-90).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H. D. (2004).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NY. Longman.
-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NY: Pearson Education.
- Celce-Murcia, M. (2001). *Teaching language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ed.). Boston, Mass: Heinle & Heinle Publishers.
- Celce-Murcia, M., Brinton, D. M. & Goodwin, J. (1996). *Teaching pronuncia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bert, J. B. (2005). *Teaching pronunciation using the prosody pyramid*.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Melbourne, Cape Town, Singapore, Sao Paulo.
- Gumperz, J. (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old, T. E. (2002). *Applied phonetics: the sounds of American English* (3rd ed.). NY. CBS College Publishing.

- Hewings, M., & Goldstein, S. (1990). *Pronunciation Plu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nkins, J. (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ones, D. (1967).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Heffer & Sons. Ltd.
- Jung, Woo-hyun. (2004). Listening activities in Korean EFL contexts: bottom-up, top-down, and interactive type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2), 77-100.
- Kenworthy, J. (1992). *Teaching English pronunciation*. London: Longman.
-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Press.
- Levis, J. (1999). Intonation in theory and practice, revisited. *TESOL Quarterly*, 33(1), 37-63.
- McGregor, A. & Reed, M (2018). Integrating pronunciation into the English language curriculum. *CATESOL Quarterly*, 30(1), 69-94.
- McNerney, M. & Mendelsohn, D. (1992). *Suprasegmental in the pronunciation cla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rley, J. (1991). The pronunciation component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ESOL Quarterly*, 25(3), 481-520.
- Pennington, M. & Richards, J. (1986). Pronunciation revisited. *TESOL Quarterly*, 20(2), 207-225.
- Peterson, P. W. (2001). Skills and strategies for proficient listening. In M. Celce 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87-100). Boston mass: Heinle & Heinle.
- Prator, C. & Robinett, B. (1985).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4th ed.). Harcourt Brace & Company.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kierso, A. (1991). Textbook selection and evaluation. In M. Celce 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432-453). Boston mass: Heinle & Heinle.
- Spencer, A. (1996). *Phonolog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 Swerts, M. & Gelukens, R. (1994). Prosody as a marker of intonation flow in spoken discourse. *Language & Speech*, 37(1), 21-43.
- Wilson, M. (2003). Discovery listening improving perceptual processing. *ELT Journal*, 57(4), 335-343.

<분석 교과서>

- 김성곤 외. (2018). *Middle School English I*. 서울: 능률교육.
- 최연희 외. (2018). *Middle School English I*. 서울: 미래엔.
- 이병민 외. (2018). *Middle School English I*. 서울: 동아출판.
- 이재영 외. (2016). *Middle School English II*. 서울: 천재교육.
- 이병민 외. (2016). *Middle School English II*. 서울: 동아출판.
- 박준연 외. (2016). *Middle School English II*. 서울: 와이비엠.
- 이인기 외. (2014). *Middle School English III*. 서울: 천재교육.
- 김충배 외. (2017). *Middle School English III*. 서울: 능률교육.
- 신정현 외. (2016). *Middle School English III*. 서울: 와이비엠.
- 김성곤 외. (2018). *High School English*. 서울: 천재교육.
- 양현권 외. (2018). *High School English*. 서울: 능률교육.
- 홍민표 외. (2018). *High School English*. 서울: 비상.
- 박준연 외. (2018). *High School English*. 서울: 와이비엠.
- 이찬승 외. (2013).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능률교육.
- 이창봉 외. (2015).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천재교육.
- 이찬승 외. (2013). *High School English II*. 서울: 능률교육.
- 김진완 외. (2013). *High School English II*. 서울: 천재교육.

<Abstract>

A Study of the Contents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Hyun, Sumi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ong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One is to analyze contents of pronunciation teaching of current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in terms of segmental and suprasegmental aspects, diversity of pronunciation task types, explicit explanations of pronunciation rules and features, and the integration of pronunciation into other language skills. The other is to present how phonetic or phonological contents in English textbooks should be improved and complemented in order to develop oral communication skills of English learners. For analysis, the basic English textbooks currently used in all middle and high school classes in Korea were chosen. In addition, an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six in-service English teachers to see their opinions about pronunciation teaching in English textbooks and find some improvements related to effective pronunciation instru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8.

Firstly, it was shown that most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did not deal with contents of pronunciation teaching appropriately.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segmental sounds that do not exist in Korean and are difficult to pronounce were not found to be involved and they were only presented in a perfunctory way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Strangely enough, most of the English textbooks did not cover suprasegmental aspects significantl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ir affecting oral communication in Englis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one of the important segmental sounds, such as schwa /ə/, and to deal with placement of stress in sentences including the rhythmic organization of stressed and unstressed syllables frequently found in English as a stress-timed language.

As for phonological processes,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focused on linking and palatalization. Linking was found in most of them and palatalization was presented only in specific two cases, /tʃ/ and /dʒ/. However, deletion and reduction that occur frequently in everyday oral communication were not dealt with satisfactorily. Therefore, they need to be included in a balanced way in textbooks for learners to practice various modifications of sounds.

Secondly, the analysis of a variety of pronunciation tasks and the degree of explicit explanation of pronunciation rules and features in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revealed that they only provide traditional pronunciation activities, such as minimal pairs, discrimination of sounds, and listen and repeat task, without any inclusion of communicative tasks. Also, no explicit explanations of pronunciation rules were provided except for phonetic using symbols. For more effective pronunciation instruction, various types of tasks within communicative pronunciation teaching, such as paintings, pop songs, chant, and games, must be presented, along with explicit explanations of the pronunciation rules.

Finally, it was found that contents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are mostly

integrated into the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English teachers also showed the same opinion that such integrated approach is appropriate for stimulating students' interests and effective pronunciation instruction. However, if possible, pronunciation practice teaching should take place beyond the isolated sounds and word levels to dialog or discourse levels,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EFL learners.

부 록

현행 영어 교과서의 발음 지도 내용 분석을 위한 설문지

본 설문지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발음 지도 분석’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자세히 적어주세요.

1. 현행 영어 교과서 발음 교육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양과 질적인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2. 영어 교과서 발음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 두가지의 음운 현상에만 치중되어있다, 억양과 리듬 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운 현상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3.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에게 발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Light vs. Right 과 같은 minimal pairs의 전통적인 방법을 활용, 학생이 직접 발음할 수 있도록 활동과 게임 위주의 수업 개발, 팝송이나 찬트를 활용...

4. 발음 지도를 다른 영역(말하기, 듣기, 쓰기)과 통합시켜서 지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가르치는 게 좋은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5. 영어 교과서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발음 지도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분절음(자음/모음)구별, 강세, 리듬, 억양, 박자, 연음, 생략, 탈락, 동화현상
“교과서에서 강세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